



가나의 혼인 잔치 (Giotto di Bondone, 1267-1337)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347-834-5784

212-736-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kc.org@gmail.com](mailto:stfranciskc.org@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ordan,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mailto: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김효주 (투스 평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mailto: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 제1독서 | 이사야 62,1-5

### 화답송



(후렴)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거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 제2독서 | 1코린토 1서 12,4-1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복음 | 요한 2,1-11

영성체송 |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성가 | 입당성가 [417]

예물준비 [39]

영성체 [151]

파견 [165]

### 미사 봉헌

연미사	봉헌
윤항구 알렉산더	유희순
이정진 안토니오	가족
이효경	이성수 미카엘
생미사	봉헌
서이나 스텔라 세레축하	가족
이은영 스텔라 세레축하	이경미 모니카
이은영 스텔라 세레축하	김제나 글로리아
이영애 레지나, 이미진 쇼앤 그레이스	가족
이그령 클레멘스 가정	이그령 클레멘스
지군자 스테파니아 영육건강	진정은 마리아
김택영 알버트, 김혜숙 마리아	경원유 프란치스코
김진열 가롤로 신부	손명희 엘리사벳
김제나 글로리아	이경미 모니카
허성윤 안드레아	민지은
박알버트, 박아그네스 영육건강	양미숙 마리아
김주원 요셉, 홍명 미카엘	장혜윤 크리스티나
복사단	손명희 엘리사벳
민경록 로이드 생일축하	민재인 데레사
서하연 프란치스코 생일축하	민경록 로이드가족
양숙경 마리아 영육건강	이미숙 안나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1월 19일	백이백	김진수	고은경	고은경	김영숙	최사도요한 이유티나
1월 26일	정유진	강호영	이경자	이경자	민덕미	-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오늘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  
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설 합동 위령 미사

일시: 1.26(주일) 9시 15분, 윗 성당  
신청: 친교실 안내데스크(연령회 담당) 마감: 1.19(주일)  
☺ 이름을 바르게 써 주시고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설 명절 행사

일시 및 장소: 1.26 미사 후, 친교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이날의 모든 단체별 모임은 설 행사로 대체됩니다.

▶성령기도회 미동북부 기초세미나

2.13(목)~16(일) 뉴튼수도원. 신청비 \$390  
대상: 세례받은 누구나. 문의: 맨하탄 성령기도회장  
민재인 데레사 (917)929-4242; [janemin@gmail.com](mailto:janemin@gmail.com).

▶성령기도회 찬양미사

1.21 6:30pm~8:30pm 다미안홀. 초대합니다.

▶청년 겨울캠프

장소: Tannersville, NY 일정 : 2.14~16(2박 3일)  
참가비: \$190(non-refunable deposite; \$120  
(스키 리프트 및 렌탈은 별도)  
문의: 청년회장 진현중 빈첸시오 929.660.4456

▶청년 성서모임

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첫모임: 2.16(일) 12시. 다미안홀 참석필수  
대상: 세례받은 청년 신청마감: 2.9(일)  
문의: 대표봉사자 유선옥 베로니카  
카톡: sunwouk (714)809-9874

▶영적서적 구입



영적독서는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가꾸어 지혜의 샘터가 되며, 변화를  
돕는 비결입니다. 다미안홀에서 다양한  
영적 서적을 구입하실수 있습니다.

‘도서 성물부’ 다미안홀 \$10

▶2025 ‘일년일독 성경통독표’ 배부

2025년 새 성경통독표는 사무실에서 배부합니다. 날마다  
15분, 정해진 분량을 읽고 매일 와 닿은 말씀을 노트에  
적으면서, 성경말씀을 새기는 감동, 맛보시길 기대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성경통독을 마치신분은 사무실에 성경  
통독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2 거룩한 독서에 대하여

1. 성경은 모두 하느님의 영감으로 씌어졌다.
2. 성경은 신주단지(신약)가 아니다. ‘집어 들고 읽어야.’
3. 사람들이 우리 집에, 우리 방에 들어왔을 때 성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한다.
4. 성경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나의 시선이 모아지는 곳에  
있게 할 것이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나의 마지막 책이  
되어야 한다.
5. 성경이 모셔져 있는 책상을 제단처럼 여겨라. 그것은 사적  
으로 모시고 있는 나의 감실이다.
6. 성경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7. 성경을 읽고 싶은데 만약 그대 안에서 입맛을 돋우지  
못한다면, 그대가 아프다는 신호다.
8. 우리의 기억 속에 성경 말씀이 풍요롭게 쌓이고, 흘러넘치게  
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따로 외우고 다녀라.

▶2025년도 본당 달력 배부

필요하신 교우분들은 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2025년 친교실 봉사 안내

1월	사목회	7월	청년: 주보팀, 찬양팀, 성서모임
2월	요셉회, 성모회	8월	울뜨레아
3월	구리아	9월	청년회
4월	학부모회	10월	학부모회
5월	연령회	11월	구리아
6월	선교분과:성령기도회, 성소후원회, 풍물패	12월	성모회, 요셉회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  
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구나

윤웅렬 하상바로 신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면모가 가장 잘 드러나는 명칭은 바로 '나자렛 사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베들레헴이지만,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이 터전을 잡고 산 곳은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래아 호수로부터 왼쪽으로 40여 km 떨어진 곳에 있던 나자렛이라는 고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 또한 흔했었기에, '나자렛'이라는 지명을 붙임으로써 예수님의 고유함을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한 지명인 카나는 그 나자렛에서 걸어서 두 시간 이내에 당도할 수 있는 가까운 고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카나에서 열린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고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미 거기에 계셨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럽게 이 혼인 잔치의 주인공들이 나자렛 성모자(聖母子)의 지인(知人)이었던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혼인 잔치의 흥을 북돋워 줄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마침 잔칫상의 상황까지도 살뜰히 살펴보고 계셨던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이를 놓치지 않고 당신 아드님에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없구나."(요한 2,3)

신약성경의 언어인 그리스어에는 동사의 인칭에 따른

형태 변화가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1인칭 단수와 복수, 2인칭 단수와 복수 그리고 3인칭 단수와 복수. 성경 원어를 보면, 성모님은 여기서 3인칭 복수를 써서 말씀하십니다. "오이논 우크 에쿠신 - 포도주를 (그들이) 아니 가졌구나."(뫼자 번역) 성모님이 바라보신 것은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시간을 기쁨으로 만끽해야 할 혼인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이 포도주의 부족함으로 겪을 황망함을 미리 바라보시고, 참 좋은 '지인'이셨던 성모님은 그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배려를 아드님께 건네신 이 마음의 청원으로 드러내십니다.

아직 당신의 때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드님이신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씀을 흘려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지인을 향한 성모자의 이 따뜻한 마음은 혼인 잔치의 기쁨이 상실되지 않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좋은 포도주로 이 잔치를 풍요롭게 하였습니다. 요한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징이 '지인의 혼인 잔치'라는 사실에 새삼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가까이 알고 사귀는 이들을 향한 진심어린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큰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는지를 성모자께서 보여주십니다.